

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의 혁명 일꾼들

- 북한 수필의 감정조직으로 알아보는
이상적 인민의 서사

2018-10226 인류학과 문지원

북인문화사

목차

1. 사람을 움직이는 은근하고 강력한 힘, 감정 - 6
2. 북한 인민이 된다는 것은 - 9
 - ▷ 인민은 사회주의 혁명의 일꾼 - 9
 - ▷ 혁명의 일꾼을 만드는 수필 -13
3. 수령의, 수령에 의한, 수령을 위한 인민 -17
 - ▷ 모든 것은 김정일 동지로 - 18
 -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는 수령복 - 22
 - ▷ 수령이 채워주는 인민의 불안전함 - 25
 - ▷ 모든 목표는 김정일 동지를 위해서 - 27
4. 당의 사업은 곧 나의 사업 - 29
 - ▷ 적극적인 혁명사업 참여로 - 29
 - ▷ 인민 영웅 이야기 - 32
5. 모든 인민이 영웅일 수는 없다 - 35

일러두기

이 글에 인용된 수필의 띄어쓰기 등 맞춤법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식으로 수정했다.

1. 사람을 움직이는 은근하고 강력한 힘, 감정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을 넘어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사업 달성을 목표로 한다. 큰 포부를 가진 북한 정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매력적으로 구성하는 각양각색의 선전 선동으로 인민을 동원하려고 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의 정체성이기에 체제의 정당성과 우수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북한 선전에 사회주의의 객관적인(주로 경제적인) 우월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체제의 우수성을 중요시하는 국가에서, 왜 이성적인 설득이 아닌 감정의 동요를 활용하는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정치는 심리전이다.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세습 독재 체제를 채택한 북한 정치에서도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인민의 감정을 고양해 인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개인이 경험하는 신경 작용의 발현 이상이다. 감정은 사회로부터 형성되며, 행동을 통해 사회를 형성한다(소병일 2018). 인간의 감정 경험은 감각적·주관적 느낌, 인지적 평가, 표현 및 행위적 반응, 그리고 대처 행동이라는 네 단계의 과정을 수반한다(정향진 2013: 175). 인간은 사회화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감정을 배운다.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무엇인지 인식하고 표현적·행위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은 그것에 대해 문화적으로 구성된 대처 행동을 유발해 사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마다 특정 감정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한다. 소병일은 또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을 연결함으로써 정치적 연대 등을 통한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감정을 통한 사회의 연대와 연결된 유기체로서의 행동이 중요하다. 물리적 자원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인민의 심리를 활용하는 비물질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당의 목표를 위해 인민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고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선전에서 의 감정 활용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한 김정일 정권의 선전에서 잘 나타난다. 영화에서 문학,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선전물들은 김정일과 북한, 인민에 대한 서사를 생산해왔고 그것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그중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수필이다. 수필은 다른 선전물에 비해 양이 적지만, 사실성의 측면에서 다른 문학 장르와 뚜렷이 다르기에 따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 허구의 설정과 서사를 만들어내는 소설과 달리 인민 중 누군가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접하는 소설은 수용의 정도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수필이 북한의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문학적 뉴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감정 정치의 맥락에서 월간 『조선문학』에 수록된 수필을 탐구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 수필이 인민의 감정 경험을 조직하여 당이 필요한 이상적인 인민을 만드는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월간 『조선문학』은 북한 정권의 입장과 사상을 질게 반영하는 문예 기관지이다. 북한의 수필은 사회주의 사실주의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범적인 인민의 전형을 보여주고, 인민이 그 경험을 공감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당의 요구에 맞게 소재와 서사를 선택하고 인민을 혁명의 충실한 주체로 구성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조선로동당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며, 그 목표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인민이 수필 작품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감정 정치가 더욱 중요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의 초기인 1996년의 작품 열세 편을 다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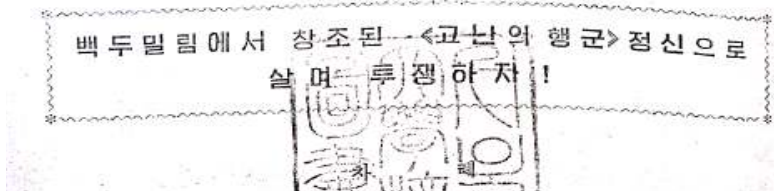
2. 북한 인민이 된다는 것은

▷ 인민은 사회주의 혁명의 일꾼

당은 이상적인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상정하여 선전에 투영하기 때문에 당의 사상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 수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혁명 위업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당의 영도와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정일의 저작(1990)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따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국의 융성과 번영을 위한다. 사회적 변혁과 건설사업을 통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나라를 만들고, 외부의 난관 속에서 조국을 수호해 세계 (사회주의) 혁명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당은 혁명의 과정을 이끄는 주체이자 인민의 어머니당이다. 인민은 당의 영도를 잘 따르고 혁명화하여 사회주의 낙원 건설에 힘써야 한다. 인민이 혁명화한다는 것은 첫째로 당과 한마음이 되는 것, 둘째로 적극적으로 당의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당의 사업에서 인민은 한 부분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원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혁명화한 인민을 조직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인민 만들기

- 사회주의 혁명 일꾼 만들기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당은 인민이 당과 한마음으로 단결해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와 같이 작동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한다(서재진 1999). 인민은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이자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기에 개개인의 자발적인 혁명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북한 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 당과의 연결 고리를 내면화한 인민은 “당의 사업을 자기 자신의 사업”(김정일 1990: 4)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조선문학』 1996년 3월호 목차 좌측 상단의 구호

특히 1996년의 자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해가 인민을 혁명화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이면서도 가장 인민을 혁명화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한 시작에서 그는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하였는데, 북한의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정권과 사회에 큰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승계자인 김정일은 김일성만큼의 카리스마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김일성 사후 삼년상,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꽤 길고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처음으로 부자 관계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기에 세습의 정당성이 특히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은 북한 대기근이 매우 심각해지던 시기이다. 김일성의 사망부터 이어진 경

제적 어려움이 점점 극심해지자 김정일은 1996년 신년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통일부 북한자료포털에서 재인용)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기아 사태를 공식화했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이 만주에서 흑한과 굶주림을 이기고 행군한 정신을 본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자는 메시지였다.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은 엄청난 기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또 인민의 사회적 이탈을 막고 그들의 희생과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물질적 기반 없이 정신을 강조해야 하는 시기일수록 선전이 더욱 정교하게,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인민 만들기는 당과의 연대,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심리적 방법론을 따른다. 그래서 당은 대중에 대한 ‘설복과 교양’을 통해 인민에게서 특정한 감정적 경험을 유도한다(김정일 1990: 32). 북한 선전에서 감정은 그 주체인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된다. 수령 중심 독재 체제는 수령과 인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하는 감정의 서사 속에서 정당화된다. 나라는 ‘사회주의 대가정’이자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인민은 자녀이고, 선전에서는 이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을 수령-인민 관계에 투영한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처음으로 부자 관계에 따라 권력을 세습 받았다. 항일유격대 활동과 건국 등으로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갖춘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은 이전부터 북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음에도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했다. 따라서 종교적 숭배 대상으로서의 수령 - 김일성 김정일 모두 -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대가정에서의 아버지 프레임을 통해 정서적으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민이 수령 아버지에게 갖는 마음은 자식으로서 당연하고 당위적임을 강조해 인민의 정서적 동의를 얻고자 했다.

- 수령 - 자애로운 아버지

대부분 국가에서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다. 반면 북한의 김정일은 사회주의 조국을 이끌어 인민을 잘살게 하는 개인이기 이전에, 인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자애로운 아버지이다(김강일 외 1996; 리건일 1992). 수령은 자나 깨나 인민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고심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허허 웃으며 허물을 보듬어주는 사람이다. 이것은 김정일을 만난 사람들의 글이나 김정일 위인전, 그의 일화를 다루는 여러 선전물의 서사에서 드러난다. 개인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하거나 회의에 빠진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서나 적극적이고 힘이 넘친다.

- 인민 -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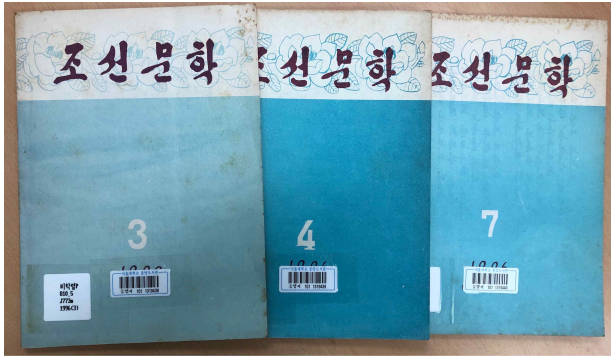
수령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당연하게 아들딸로서의 인민에게도 정서적인 의무가 있다. 한 가정 안에서의 도덕에 따라, 인민은 자녀로서 아버지 수령에게 충과 효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민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수령의 독재 아래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가정 즉 사회가 유지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수령의 통치를 정당화한다. 대가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획득한 인민은 더 나아가 '북한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행복, 애국심, 당(수령)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 수령이 인민을 보살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행복과 자긍심을 느끼고 그 수령에 보답하기 위해서 당의 영도를 잘 따라야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것은 곧 혁명화로 이어지고,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화와 내면화를 가능하게 한다.

▷ 혁명의 일꾼을 만드는 수필

수필은 작가가 직접 겪은 것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 장르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된다. 사실성이 높기에 북한 문학예술의 주요 사조인 ‘사회주의 사실주의(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소련 작가 동맹에서 시작된 하나의 예술 사조로, 사회주의 이념과 사실주의적 방법론을 원칙으로 한다(권영민 1989: 62-65).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품은 현실을 사회주의적 혁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인민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교화해야 한다. 서사의 중심인물은 사회주의 국가 실현을 목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활동하는 모범 인민이다. 이러한 공식은 북한의 문예 정책에도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북한에서는 민족적인 문예 형식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 혁명 의식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북한의 문학 작품은 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자의 전형을 제시한다.

당위성과 방향성을 갖춰야 하는 수필은 작가의 경험 중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일어나야만 하는 경험만을 소재로 하여 이상적인 인민이 겪을 만한 정서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필의 서사 자체가 사회주의 현실이라면 마땅히 어떠한 것은 사실을 구축하고 제시하는 과정이 된다. 남한의 수필은 작가 개인이 특별하게 겪은 것을 공유하고, 그것에서 함께 새로운 통찰을 얻는 통로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꼭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와 같이 국가의 체제 정체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또는 부정하는 것까지도 모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필의 사실성은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에게도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한다. 직접 계몽하고 혁명화된 사람의 글은 선전에 더욱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독자는 일차적으로 수필의 내용을 실제 있었던 사건,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일관된 선전 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 작가가 구성해낸 허구의 이야기보다는 작가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더욱 신뢰감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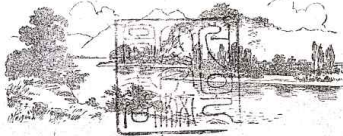


『조선문학』 1996년 3월호, 4월호, 7월호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월간 『조선문학』은 계간 『조선문학』을 이어 1953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는 북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유일한 기관지이다(김성수 2015: 355; 이성천 2010: 307-308). 당의 정책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체가 발간하기에 이 잡지는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한다. 문예지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창작 방법론을 선도하는 북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예의 산실로 기능하기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게 위임을 받은 편집 위원회는 익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김성수 2015: 364). 주

요 저자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로, 여러 수필의 내용로 짐작하자면 당이나 수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체제는 1967-1968년에 주체사상을 성립한 이후 당 중심에서 수령이라는 개인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 이후 작가 조직은 충성심을 더 잘 드러내는 작품을 쓰는 경쟁적인 활동을 보였는데, 이것은 『조선문학』의 편집 방식에도 녹아 있다.

— 1996. 4



작 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4)

수령의 봄날(시)..... 김철호(7)

만민의 하늘(연필초경)..... 김명희(8)

인민의 소원(시흥)..... 김원준(19)

노을속에 솟은 태양(시경 서사시)..... 리 혁(25)

관정대(시)..... 김완경(24)

만수무민이든 언제나 봄개울(가사)..... 김선지(18)

수령님 생각(수필)..... 최성진(36)

☆ 임민영희가 유
뜻깊은 봄날이 접하는 이야기..... 분사기자 리홍성(31)

☆ 위대한 영간 ☆
주체의 최고성지에 깃든 위인의 충정..... 분사기자(33)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시)..... 김, 대, 배르티케프(35)

술의 불리소래(시)..... 리명삼(30)

꽃강원(시)..... 리명삼(30)

그리운 수레 의 1번(시)..... 박용환(38)

그림의 봄진분개(시)..... 남필원(74)

말재해설..... (40)

정 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한 중심의 성격창조(세운)..... 명필사(60)

○ 평양최초신문인 평壤을 위하여 임종일: ○

봄노래(연필초경)..... 박운성(48)

군대명령을 받았을(수필)..... 송항복(78)

나는 언제나 반사(시흥)..... 박규원(76)

임위동 첫차(시)..... 김광민(41)

○ 평양을 위한 오늘에 살아 ○

설에서의 공연(연필초경)..... 김도원(57)

영원함 심장(산악취곡)..... 리원권(67)

뿌다론 평원(수필)..... 리경수(79)

반미리(시)..... 김광민(42)

《혁명광사랑》가장(시)..... 천원수(44)

우리 당의 순결(가사)..... 김수현(37)


산봉이 흐를 때 의 1번(시)..... 정태진(56)

새벽이여, 우리 나라를 앞서주고 의 1번(시)..... 명원택(66)

선물용 두교서는 의 1번(시)..... 리익주(75)

정찰용 구내귀례서(시)..... 최정우(55)

관영동 위대 오늘에 살자(가사)..... 김명희(65)



『조선문학』 1996년 4월호 목차

『조선문학』은 목차 순서와 실제로 작품이 실린 페이지 순서가 다르다. 목차에서도 특정한 분류에 따라서 글을 나누지만 실제로는 편집진이 의도한 방식에 따라 글을 읽어가도록 구성되었다. 독자를 한 방향으로 계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김성수 2015: 372). 선전을 통해 인민을 수령 숭배와 혁명화로 이끌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당의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선문학』은 1996년이라는 시대적, 정치적 배경에서 더욱 당의 계획에 맞는 수록 작품을 선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6. 3.	최성진	위인의 천품
	조인영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며
	로창일	보조금에 비끼는 생각
	리수덕	농민영웅의 고향에서
1996. 4.	최성진	수령님 생각
	손영복	군대명절을 맞으며
	리정수	류다른 명절
1996. 7.	김정	위대한 인간미
	최봉무	군로신일
1996. 8.	박영이	로시인의 모습에서
	리수덕	약속
1996. 9.	김우경	한 편의 전설을 두고
	리재준	집과 세월을 두고

<분석에 사용한 작품>

3. 수령의, 수령에 의한, 수령을 위한 인민

2장에서 북한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 인민상을 알아보았다. 인민은 김정일을 통해 북한 인민의 정체성을 내면화하여, 당의 사업인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과정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예술사조를 통해서 수필에 반영된다. 앞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수필에서 개인이 이상적인 인민으로 조직되는 서사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수필의 서사는 감정 정치의 맥락을 바탕으로 감정 경험을 통해 인민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수령과 체제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 경험이 인민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모든 것은 김정일 동지로

문예지 목차에서는 수필을 묶어서 한 번에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목차와 실제 구성 모두에서 다른 여러 작품과 섞여 있었다. 수필의 소재는 모두 북한의 체제, 수령, 당과 연관 있었고, 모든 서사가 김정일로 귀결되었다.

첫째로 수령 또는 당의 일화가 액자식으로 삽입되거나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다. 수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나 수령의 일화를 서술한 것은 여섯 작품이었고, 나머지 작품들도 주변인의 모범적인 모습이나 명절과 같은 시간적 맥락에서 느낀 점을 제시하였다. 그중 광복절이 있는 8월호에 남북 분단과 통일 염원을 다룬 작품도 있었지만, 이것도 중국에는 김정일 체제를 위한 염원이라는 점에서 수령과 관련 있었다. 이러한 소재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또는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데에 쓰였다. 그중에서 여러 작품에 수령의 일화가 삽입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가가 수령에 대해 생각한 부분을 제시할 때 수령의 일화를 액자식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전기와 같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미술가는 눈빛에 역점(力點)을 찍었어. 장군님의 눈빛, 그분을 우러르는 인민의 눈빛! …(후략)…>

그의 말을 듣노라니 나의 머릿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엔 늘 일군들에게 하시었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김정일조직비서는 인정이 많고 눈물이 많았다고 하시었다는 말씀, 일찍 어리신 시절부터 동무들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여기시고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낄 줄 모르시던 자애로운 김정일 동지! 그래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께서도 아드님을 가리켜 동무들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중략)…

어느 해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기계공장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이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계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그들을 찾아주시었다. (최성진, 「위인의 천품」)

「위인의 천품」은 작가 최성진이 김정일을 기리는 소설의 영감을 얻기 위해 그림 전시회를 갔다가 김정일을 잘 묘사한 그림을 보고 그의 인품을 떠올리면서 감동했다는 내용이다. 김정일의 눈빛을 잘 묘사했다는 친구의 평가를 들은 최성진은 김정일에 대한 평가와 그의 인품을 보여주는 일화가 떠올랐다고 이를 소개하고 있다. 인용구 이후 일화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었고, 작품은 그 일화 등에서 드러나는 천품을 지닌 김정일을 수령으로 둔 인민으로의 행복감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성진이 미술 전람회장엔 간 것은 김정일의 인품을 소개하기 위한 도약이었고, 중요한 내용은 김정일의 일화였다. 이런 종류의 수필은 최성진의 사고(思考)라는 액자를 걸어내면 위인전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

둘째로 작품의 후반부에서 모두 김정일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 또는 충성 의지를 언급했다. 도입 부분에서 가장 체제와 거리가 먼 것은 리수덕의 「약속」이다. 리수덕은 인간의 삶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에서 온 혁명동지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그는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이 고통을 만든 원수에 대한 분노와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부분까지는 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질 만한 서사이다. 하지만 리수덕은 “혁명과업수행에 분발 또 분발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실 드넓은 통일의 광장을 반석으로 다져가는 일에 매일 매시각 하나의 조약돌, 한줌의 모래와 세멘트를 보태는 그런 심정으로!”(「약속」)라는 말을 통해 당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으로 시작된 글이지만, 결론은 통일을 통해 김정일을 드높이자는 것이다. 모든 민족이 김정일 동지를 모시는 광장을 제공하기에 통일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인민이 현재 혁명과업수행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도입부에서 어떤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작가의 생각이 도달하는 곳은 수령과 당이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인민에게 요구하는 사고의 틀이다. 모든 것은 수령과 조국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생각은 김정일로 귀결된다. 1996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여러 작품이 김일성을 다루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김일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김정일을 언급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앞에서 작가들의 일화가 김정일의 일화를 액자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것과 비슷하게, 김일성의 일화는 김정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길게) 삽입되었다. 최봉무의 「군로신일」을 들 수 있다. 군로신일은 중국의 리극농이 김일성과 당원을 보고 놀라 했다는 말로, 신하가 일하고 임금의 논다는 뜻의 신로군일(臣勞君逸)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최봉무는 인민을 위해 휴일을 마다하고 매일 밤낮으로 노력한 김일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신하-당원으로서 수령의 짐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분량의 대부분을 김일성을 칭찬하며 그리워하는 내용에 할애한 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잇는다.

수령님의 제자, 전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 천백 번 후회하고 자책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붉은 깃발을 들어 추켜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의 길을 역세계 걸어가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서 장군님의 로고를 덜어드려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수령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시는 길이며 우리의 사업이 <신로군일>(臣勞君逸)이 되게 하는 길이다.

나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는 데서 <신로군일>이라는 성구를 순간도 잊지 말자고…(최봉무, 「군로신일」)

저자는 김일성의 군로신일에 보답하지 못한 아쉬움을 김정일을 위해 신로군일하자는 의지로 승화한다. 글의 마지막에서 저자가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일을 따라 전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이것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르는 것이기에 정당하다. 전 세대에서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김정일 체제에 더욱 충성하는 것이 당위적임을 주장하는 것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조인영의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며」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활용되었다. 조인영이 라디오에서 《동지애의 노래》를 듣고, 김일성과 그의 아버지 김형직이 항일운동 및 사회주의 혁명에서 동지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떠올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짧은 한 단락에 김정일의 동지애가 설명된다. 두 위인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서술은 이 글의 주제의식 또한 김정일 찬양을 향하게 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필은 이상적인 인민이라면 가져야 하는, 모든 것을 김정일로 연결하는 생각의 흐름을 제시했다. 작품들이 작가의 일화나 수령의 일화 -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작가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더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특징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세하게 풀어 씀으로써 읽는 사람이 주 소재가 되는 경험보다 글쓴이의 사고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것은 독자로부터 감정 경험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북한 수필의 또다른 내용적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수필은 체제와 관련해 작가가 느낀 바를 제시하여 인민이 김정일 체제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의도한다. 작가는 이상적인 인민으로서 느껴야 하는 감정 상태를 제시하고, 또 그러한 심리를 경험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서술한다. 독자는 수필의 서술을 따라가며 인물의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수령복을 타고난 행복한 인민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데에 기여한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는 수령복

수필 속 인물은 김정일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북한 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작품은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김정일, 김일성 또는 노동당의 존재와 (선한) 영향력을 새삼스럽게 느낀 이야기로 시작한다. 주로 수령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거나 수령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운 경험 등 직접적으로 수령에 관련된 상황이 제시된다. 군대 명절이나 식수절 등 체제와 관련된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물이 그 명절의 유래와 의미를 곱씹어보기도 한다. 인물은 수령과 사회주의

체제, 북한에 대해 숙고하여 수령복과 사회주의 인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 북한 인민의 정체성은 수령(김정일), 그리고 당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완성되기에 작품의 인물은 당과 한마음이 될 수 있다.

수령 개인에 대한 찬양과 감동을 드러내는 작품에서는 그의 카리스마와 인품에 감동하는 경험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여러 일화를 들어 위대하고 대단한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갖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그를 지도자로 두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인민의 행복이자 기쁨이라는 논리이다. 이것은 ‘수령복’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김정의 「위대한 인간미」는 작가 김정이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감동한 경험을 여럿 소개한다. 그는 김일성이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매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통해 그를 감동과 우려를의 대상으로 형상화했다. 김정은 문학 작가로서 김일성과 만날 기회가 여럿 있었다. 그는 김일성에게 직접 만나서 영광이라는 말을 전하고, 만찬을 들며 대화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면서 작품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벅찬 감동이 우러나움을 느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다거나 “내 한생의 절정”이라거나, “전류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갑자기 몸과 마음을 옹송그리며” 등의 강렬한 감정어가 사용되었다. 이 글의 주제가 인간미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여러 업적보다도 “열렬한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강조했다.

천하대적을 공포에 떨게 하던 우리같은 그 목소리, 그러나 두고 온 고향과 조국을 그리실 때면 울분과 향수로 떨리던 다감한 그 목소리, 한번 울리면 천하도 움직이고 두번 울리면 백년속적의 심장까지도 흔들여놓는 수령님의 그 목소리가 노래로 되어 장내에 흐르는 순간 나는 전류에라도 감전된 사람처럼 갑자기 몸과 마음을 옹송그리며 송구스럽게 그이를 바라보았다.

…(중략)… 이상의 세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몇 개의 소묘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의 천재, 영도의 거장,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기 전에 태양같이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미의 화신, 이것이 바로 내가 본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었다.

…(중략)…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록 서거하셨으나 그이의 위대한 생애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생애를 영원에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다.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가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훌륭하게 계승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수령님의 인간미 역시 그이에 의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만발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간미는 인간미의 극치로서 만민의 경탄과 숭배심을 자아내고 있다. (김정, 「위대한 인간미」)

김정은 김일성의 노래를 들은 경험을 매우 자세하고 다채롭게 서술했다. 인용문 외에서도 작가는 그 경험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벅찬 일이었는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를 되풀이해 설명했다. 이것은 반복과 강조, 극적인 단어 활용 등을 통해 독자가 인물의 경험을 최대한 비슷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도왔다. 마치 독자도 김일성과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현장감 있게 김일성의 인간미와 아우라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 외에도, 김일성의 위대한 인간미가 글의 막바지에서 김정일의 위대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김정일은 충분한 설명 없이 당연한 것처럼, 김일성의 위대함을 이어 받은 사람으로 그려졌다. 이것은 수필의 궁극적 목적이 김정일을 높이고, 그를 따르는 인민의 행복 즉 수령복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우리 인민은 얼마나 큰 수령복을 타고난 것인가! (최성진, 「위인의 인품」)

‘수령복’은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생활하는 인민의 행복을 의미한다. 북한 체제뿐만 아니라, 수령이 지도자임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개인숭배 중심의 선전이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결국 김정일 뿐이다.

▷ 수령이 채워주는 인민의 불완전함

앞에서 수령 자체에 대한 예찬을 통해 수령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감정을 조직했지만, 인민이 수령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모든 감정은 궁극적으로 인민의 정체성 형성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일을 단순히 멀리 있는 위인이 아니라 가깝고 친밀한 사람으로 인식할 결정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수필에서 이것은 수령을 통해 인물이 안정되고 완성되는 경험으로 구체화된다.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수령과 당에 의지해 극복하면서 위대한 수령과 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자신감을 얻는 서사이다. 이것은 인민으로서의 긍지, 행복, 충만함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된다.

인민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수령의 존재에 의지하면서 완전하고 모범적인 존재로서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최성진의 「수령님 생각」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성진은 어렸을 때부터 수령이 인민 모두를 신경 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크게 실감하지 못했

는데, 김일성의 죽음 이후 그것을 믿지 않고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을 반성했다고 고백했다. 그 이후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김일성을 찾았고 수필의 배경인 저녁에도 그는 만수대 언덕에 올라가 마음속의 김일성에게 창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끄러운 고민을 털어놓았다. 최성진은 김일성이 자신에게 아들이야! 라고 부르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느끼고 창작의 열정을 채워 돌아왔다.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이 시각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떠오르다니! 좋은 일만을 많이 한 사람들도 그분을 생각할 때면 부끄럽고 죄스러워 자책감에 모대기는데 내 이 일을 어이하면 종단 말인가! 그래도 자꾸만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그이의 가까이에 가고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과연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싹터 올랐던가.

…(중략)… <어버이수령님!> 나의 속죄의 목소리는 뜨거운 오열의 뭉치가 되어 목안을 짝 때우는데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나의 심장을 두드리며 아득한 하늘가로 울려간다. 아들이야, 힘을 내거라! 인생의 먼길을 힘있게 걸어가거라!

…(중략)… 나는 이제 내려가면 글을 쓰리라. 열정의 붓끝을 가다듬어 나의 창작의 빛나는 <탑>을 쌓아가리라. 그 빛나는 <탑> 속에 내 나라, 내 조국의 영광을 수놓으리라. 무엇이 두려우랴.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어도 두려울것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밤도 나의 먼 인생길을 축복해주시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을 받는 김일성민족의 자손들이다. (최성진, 「수령님 생각」)

최성진은 작가로서의 할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 못하는 부끄러운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을 터놓을 곳이 없을 때 아버지 김일성에게 의지하고자 했다. 그는 김일성과의 대화를 상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창작의 열정이 다시 불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수령이 추상적인 집단으로서의 인민을 넘어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의 신자들이 어려울 때 신을 찾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인민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고백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은 수령이다. 김일성을 통해 북한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최성진은 “조국의 영광을 수놓는” 답을 쌓아갈 힘을 얻었다.

▷ 모든 목표는 김정일 동지를 위해서

김정일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두었다는 수령복, 그 지도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자신감, 수령을 통해 완성되고 안정되는 자아는 북한 인민의 정체성이 김정일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준다. 여러 경험을 통해 김정일에 의한 인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당과 김정일이 개인과 가까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고, 인민이 당의 혁명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인민은 당과 한마음이 되어, 김정일을 위해 당의 영도를 따르고 체제를 보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개인의 자아실현, 나아가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

인민은 높이 있는 신성한 존재인 수령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수령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령님 생각」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내면의 고민을 수령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수령은 항상 인민과 함께 계시다’라는 체제의 메시지를 내면

화하기도 한다. 수령은 인민의 삶과 아주 가까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민은 그것을 자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 노력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혁명에 연결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인민과 수령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선전 선동, 혁명을 위한 건설 사업 참여가 꼭 아니더라도,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고 어떤 부분에서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수령이 지켜보고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는 인민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수령이 응원하는 목표 즉 사회 차원에서의 목표가 된다. 수령이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란다는 점에서, 수령은 인민의 정체성 안으로 깊게 파고든다. 당은 개인의 목표를 사회의 목표로 여겨주고, 반대로 인민도 당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삼게 된다. 그래서 「수령님 생각」에서 최성진은 작가라는 본업에 충실하겠다고 자아실현의 다짐을 한 것도 사회 차원의 목표가 된다. 사회 차원에서 수령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하고, 그것에 모든 인민이 열성적이기를 바란다. 즉 최성진이 작가로서 다짐한 것은 혁명에 최대한으로 일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혁명에 최대한으로 일조하는 것은 수령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의 위대함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4. 당의 사업은 곧 나의 사업

▷ 적극적인 혁명사업 참여로

감정 경험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이다. “감정은 행위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즉 동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행동으로 연결”(정향진 2013: 189)된다.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특정 감정에 어울리거나 옳다고 규정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북한 인민으로서 당과 한마음이라는 정체성은 혁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낳아야 한다. 수필 작품들은 인물의 심리적 경험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당과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하거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독자에게 당부한다. 이 부분은 당이 인민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당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선전 구호가 아니라, 개인이 경험에서 우려난 자기고백과 주장을 활용함으로써 인민을 동원하는 데에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영이의 「로시인의 모습에서」는 박영이가 노시인 조령출의 작품 활동,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내용이다. 조령출은 ‘글은 진정으로 자신이 느낀 것을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가사를 썼다. 박영이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그의 마음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품에서 인민만 누릴 수 있는 수령복에 감사하고, 어머니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이었다. 박영이는 이 대화로 알게 된 조령출의 정신이 가사에 잘 드러남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이 당과 김정일의 영도에 맞게 살면서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진정한 행복 - 그것은 조국이었다. …(중략)… 하여 시인은 <조국보위의 노래>를 썼다. 그것은 시인이 자신의 반생의 체험끝에 이루어진 심혼의 정화였다. 다시는 조국을 원썬놈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인의 심장속에서 분출한 <조국보위의 노래>를 부르며 총잡고 전선으로 떠나갔으며 조국을 지키는 싸움터에서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던가!…

…(중략)…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 붓대로 우리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신임 속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온 로작가! 그는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포성이 울리던 그 보람찰 나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 한송이의 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던가! (박영이, 「로시인의 모습에서」)

위 인용문에서 박영이는 조령출의 마음가짐을 칭찬하면서도, 조령출이 그 마음을 가지고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했다는 것과 그의 시를 읽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행동했음에 감동하고 있다. 수령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인민이 모범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혁명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으

로 이어지지 않으면 당의 사업은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직접 행동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칭찬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나라의 혁명을 위한 행동에는 군인으로서 참전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시인으로서 북한의 문학을 더욱 빛내는 것까지 주체사상을 위한 모든 방면에서의 노력이 포함된다. 인민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애국을 표현하는 이상적인 혁명 일꾼이 될 수 있다. 박영이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한생을 티없이 깨끗하고 곧은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라를 위한 실질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자아실현이자 영광이다. 「군대명절을 맞으며」에서 손영복은 군대명절을 맞아 이웃집 청년이 손풍금 연주가가 되는 것을 마다하고 김정일의 군인으로 복무하기로 한 것에 감명받은 경험을 나누었다. 손영복은 처음에 유능한 청년이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을 뿌듯하게 받아들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김정일의 군인으로 사는 것이 더욱 영광이라는 말에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제 자식이 재능있는 예술가로 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장군님의 병사로 되는 것 이상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가식 없는 한마디 말에 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할수 있었다. …(중략)… 장군님의 병사로 되는 것 - 그것은 총대로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전초선에 서는 길이기예 현철이는 그것을 자기의 행복으로, 영예로, 가장 큰 소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중략)…이렇듯 튼튼한 심장을 가진 <구대원>들이 강철의 대오에 자기 발걸음을 맞출 것이니 우리의 혁명무력은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는 불패의 대오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중략)…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웃음이,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병사로 된 행복과 긍지가 넘쳐나고 있었다. 병사여! 그대의 영광을 축복하노라! (손영복, 「군대명절을 맞으며」)

병사의 길을 선택한 청년과 그의 부모 모두 그 결정을 혁명, 그리고 김정일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광과 행복으로 받아들였다. 현철이는 당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였기 때문에 병사가 되는 것을 자아실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현철이는 당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민의 완성형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이자 혁명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서의 인민이, 사회주의 위업과 김정일 체제 보위를 자신의 위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위해 전면적으로 노력하며 행복을 얻는 인민이다.

▷ 인민 영웅 이야기

지금까지 작품들을 살펴보며 수필에서 인민 만들기의 서사가 조직되는 양상을 알아보았다. 인민은 김정일의 지도를 받는 북한 인민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수령-당-인민의 유기적 연결을 내면화시켜 인민이 당과 한마음을 갖게 한다. 그 인민은 당의 혁명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이자 영광이며 자아실현이라고 받아들이며 심리적 경험에서 직접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상적인 인민의 자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종종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다. 잡지에서 특집으로 여러 명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육 등 특정 분야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가 출판되기도 한다. 나아가 꼭 당월 등 신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인민의 본보기가 될 만한 자질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딴 마을이나 학교가 생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농민영웅의 고향에서」는 어려운 시기 나라에 먹을 것을 기부한 농민 영웅 김제원을 생각하는 작품이다. 김제원의 마음가짐과 그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그것을 서술하는 리수덕의 언어를 통해 수필에서 조직되는 혁명 일꾼으로서의 인민 서사가 인민영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영웅 김제원은 북한 토지개혁 첫해에 나라에 쌀이 부족하자, 식량을 실어 직접 끌고 가 나라에 기부한 사람이다. 그는 해방 및 건국 후에 인민으로서의 김제원의 삶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여, 태어난 곳이 아니라 건국 후 토지를 받은 마을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겼다. 그는 나라가 땅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보탬으로써 인민의 귀감이 되었다. 수령은 이것을 대단히 여겨 그의 고향과 그 마을에 있는 몇몇 시설에 김제원의 이름을 넣었다.

받아안은 은혜에는 성실한 노력과 땀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꾸밈 없는 진정이 어려 있었고 못사람의 마음을 틀어잡는 뜨거운 감화력이 어려있었다.

…(중략)… 장군님의 각근한 보살피심과 극진한 사랑 속에서 참다운 삶과 무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그였기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장군님께 의탁하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로 직심스레 일했다. (리수덕, 「농민영웅의 고향에서」)

고향의 의미에 대한 서술은 김제원이 북한의 인민으로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령이 세운 ‘내 나라’가 있는 상태야말로 인민으로서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령과 당의 존재가 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위 인용문에서처럼 자신의 운명을 수령에게 의탁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의지를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이 나라에서 땅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탤다. 수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 인식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보답하려는 실천으로 승화시킨 혁명의 일꾼은 과연 인민 영웅이었다.

김제원의 이야기는 1996년 대기근의 맥락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인민 영웅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조선문학』 1996년 3월호, 목차에서부터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호에서 굳이 가난한 시기에 쌀-애국미-을 기부한 사람을 소재로 한 것에는 당의 의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당과 한마음이자 수령-당-인민 유기체의 일부분인 인민은 대기근의 상황에서도 나라와 수령을 생각해 개인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살펴 혁명을 이뤄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했다.

5. 모든 인민이 영웅일 수는 없다

북한의 체제 선전은 인민의 감정 경험을 조직하여 이상적인 인민을 구성하고, 그들을 혁명의 자원으로 동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은 인민이 당 또는 수령과 관련된 감정 경험을 시작으로 북한 인민이라는 계급적 정체성을 재구성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서사를 활용한다. 이 책에서는 『조선문학』 1996년도에 수록된 열세 편의 수필에서 그 서사가 드러나는 양상을 확인했다. 수필은 인민 만들기의 서사를 충실하게 구현해 독자가 작품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인민의 전형에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조직되었다. 1996년, 김정일 체제가 불안정하게 시작하는 시기에 인민 개개인이 김정일과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그 서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모든 인민이 농민영웅 김제원과 같은, 이상적인 사회주의 인민의 전형일 수는 없다. 1996년 대기근 시기에 당장 뜯어먹을 풀도 없어 인민들이 무기력하고 체제에 냉소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당의 선전이 아주 피상적인 선에서만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것은 당이 조직하려고 한 인간상이 아래로부터 실질적으

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허구의 서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근 시기 배급 체제의 중단으로 장마당 등 비사회주의적 활동이 피어나기 시작한 북한 사회에서, 인민을 오로지 체제 속의 정치적 인간으로만 바라본 시각은 인민들에게는 현실성 없게 비춰졌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책에서 해석한 인민 만들기의 서사가 인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다. 1996년, 또는 다른 시기라도 『조선문학』이 실제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주 독자는 누구였으며 인민들은 이 문예지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김정일 정권의 이상적인 인민 - 인민 영웅 서사를 더욱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하나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상은 이상일 뿐이며, 모든 인민이 영웅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문헌

북한 자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문학』 1996년 3월, 4월, 7월, 8월, 9월호, 평양: 문예출판사.

김강일, 탁진, 홍익제, 1996,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도쿄: 광명사.

김정일, 1982, 『주체사상에 대하여』, 도쿄: 시대사.

_____ 1990,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리건일, 1992, 『아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국내 자료

단행본

권영민, 1996, 『북한의 문학』, 서울: 공보처.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2014,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은용수 책임편집, 2018, 『감정의 세계, 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재진, 1999,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학술논문

김성수, 2015, “매체사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조선문학』 연구 서

설,” 『현대문학의 연구』 57: 353-383.

유승무, 신종화, 박수호, 2015, “북한사회의 합심(合心)주의 마음문화,” 『아세아연구』 58(1): 38-65.

이성천, 2010, “북한 문예지 <<조선문학>>의 유형적 특성 고찰,” 『어문연구』 64:307-328.

이현주, 2011, “북한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5(2): 291-325.

정향진, 2013, “감정의 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46(3): 165-209.

한모니카, 2018,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 ‘신해방지구’ 『개성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5: 261-298.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dicaryId=4>. (2020.06.08.접속)

모르는 곳, 알 수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북한을 한 학기 내내 보고 읽고 들었다. 여전히 아주 미숙하지만, 북한을 공부하고 수필을 연구하는 경험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를 바란다.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준 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함께 한 학기를 보낸 학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지원

2020년 6월 15일 초판 1쇄

지은이 문지원

기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북한의 인류학>

펴낸곳 북인문화사

디자인 문지원

출판등록 2020년 6월 13일 제1-1119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사회과학대학 16동

전화 010-9970-3876

이메일 cecilia99m@naver.com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cecilia99m>

ISBN 979-89-991119-7-2